

보내는 사람

釜山 東區 龍-4동 85-9 16/2

601-064

金末龍

받는사람

부산시 동구 수정2동 1-61 (통일빌딩 5층)

민주당 동구지구당 위원장

노무현

601-032



廣 議 員 任 意 書

No.

보내주신 書信 을 받아 보았읍니다.
 노의원도 그간 安寧 하십니까 人事에 앞서
 이번에 國會에 나가 시지 못한 處 處으로 송구
 습럽습니다 國會에 나갈 사람이 나가야 할터인데
 려수 삼수까지 해도 안된다고 하더니 만 是는 民
 東은 東은 黨 黨할 때도 가모았은 選 舉 期 間
 동안 노의원도의 유인물이 안이면 받지도 안
 했읍니다 周圍에 아는 사람에게도 이번에도
 13세처럼 노무현 이틀 國會에 보내야 된다고
 일하는 일관을 國會에 보내야 된다고 여러 사람
 에게 권유도 하고 설득도 시켜읍니다만 處으로
 누물겨운 일 임니다 野黨 一 番 地인 東은 가
 13세 國會처럼 되려라 꼭 믿었읍니다만
 民 主 黨에 불모리가 되더니 處으로 한심합니다
 그러나 노의원도 勇氣를 잃지 마시고 흘러간 歲月
 를 잊어버리고 다가오는 앞날을 바라보면서
 東은을 위하여 려전을 닦으십시오 이번 國會
 에 간 사람도 四年 동안 산수가 저러다 먹는 것
 닦고 남의 집 吉 凶 事에 扶 助나 내고 그것도
 門戶가 넓은 집 맡읍니다 國 會 議 員이 한가로
 인 그런 일 할 時間이 어디 있읍니까
 허문도 허삼수를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읍
 니까 그런 사람을 國會에 보내다니

民 主 黨

저는 생각하기를 그나라의 민주發展이 잘되고
政體를 잘 할라면 健全한 野黨이 있어야 한다고
본다. 有權者의 힘으로 與小野大의 政局을
만들어주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 안임니까?

저는 解放當時 20代 青年時期부터 野黨
운동과 特히나 民主黨을 지지해 왔습니다. 다만
大勢에 흐르며 순종해야겠지요.

노의원도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드세요
아직도 나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얼마든지
있습니다.

저는 66歲의 고령임이나 막 그事場에서
일하고 있습니다. 時間이 있으면 한번
찾아 보옵고려 합니다. 于先人事 말씀
드리고 9만 주십시오.

내내 健康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
 바랍니다. 이 편지 받으시고든 한번 귀의
점으로 電話주세요. 配屬이 잘 되는지
알고 싶습니다. 저녁 9時以後로요

632~8945 김말룡